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 구본승 의원,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 극대화 하고  
사회적 가치 재창출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행정정보건위원장)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5일 개최된 행정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였다.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은 강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

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기업·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

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

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본승 의원은 소유개념이었던 공간이나 물건, 재능, 지식, 정보 등을 나눔의 가치인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은 11월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북신문 5면

## 구본승 의원, 강북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행정정보건위원장)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5일 개최된 행정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했다.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은 강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기업·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 촉

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구본승 의원…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5일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였다.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은 강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기업·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

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본승 의원은 소유개념이었던 공간이나 물건, 재능, 지식, 정보 등을 나눔의 가치인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은 11월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프리 4면(11/12일자)

## 구본승 강북구의원 발의,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 통과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5일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은 강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유 촉진을 위해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기업·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



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소유개념이었던 공간이나 물건, 재능, 지식, 정보 등을 나눔의 가치인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은 지난 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서울

유영일 기자